

#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 살아지다1 '신기촌 사람들'				
구술자명	김남순	면담자	이경희, 조영숙		
면담장소	카페 루엔비 구월점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18년 11월 11일	회차	1	시간	48분 4초
자료번호	Mi chuholCA-07-00001161				
구술 개요	황해도 출신으로 인천에서 목수 일을 배움. 신기촌 일대에서 51년 거주함. 신기촌을 철거민들이 이주한 곳으로 한때 갈등이 잦았음. 97년 재개발 당시 건폐율 90% 이상으로 지어짐. 현재 인구 10%의 70세 이상. 70년대에는 동네에 공동 수도가 2개만 있었음. 초기 정착한 인구는 대부분 떠남. 직업 특성상 아직 동네에 머무르고 있음. 동네 활동은 아쉬운 점이 있지만 현 동장이 오며 좋아짐.				
주요 색인어	황해도, 목수, 건축, 신기촌, 철거민, 중국인, 전담, 승기천, 환경개선지구, 건폐율, 주차장, 5번 버스, 화장터, 빌라촌, 통장, 은행나무, 우애, 공동수도, 우물, 연탄보일러, 아궁이, 장로, 신앙생활, 표창장, 동사무소, 탁상행정, 동장, 예산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소개			00:00:00~ 00:02:15	▷ 음성파일	
- 황해도 장현군 출신으로 전라도에서 16세까지 살다가 인천에 오. - 인천에서 목수 일을 배우다가 건축 일을 하게 됨.					
2. 주안7동 일대의 변화			00:02:16~ 00:05:43		
- 이 동네(신기촌 일대)에서만 51년 거주함. - 만석동, 송현동 등이 철거되며 넘어온 철거민촌이었음. 그 이전에는 중국인들이 전담을 했음. - 의료보험공단 앞의 승기천 이름을 따서 신기촌으로 이름 짓게 됨. 승기천은 현재 수로 공사를 통해 연수동 남동공단으로 흐름. - 신기촌 일대가 주안2 서부동으로 발탁됨. 이후 주안3동이 되었다가 주안7동으로 나누어짐. - 신기촌 일대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어 고향과 마찬가지로 여김.					
3. 신기촌의 변화들					
- 각지에서 철거민들이 모여들다 보니 싸움이 많이 일어남. - 78~79년도 들어 과출소, 동사무소 등이 들어오며 점차 질서가 잡힘. - 95년 무렵부터 일대에 주택이 생기기 시작함. 과거에는 10~20평의 루핑, 슬레이트 집들이 있었음. - 97년 환경개선지구가 되며 재건축이 이루어짐. 당시 건폐율이 90%					

<p>이상이었기 때문에 동네에 주차장이 따로 없음. - 5번 버스 종점이었던 신한은행 일대에는 화장터가 있었음.</p>		
<p>4. 신기촌의 현재</p>		
<p>- 현재에도 10평 내외의 빌라촌이 형성되어 있음. - 기존 주민들은 많이 빠져나가고 어려운 젊은 세대들이 많음. - 주민들의 1/10이 70세 이상임. 해마다 해오던 경로잔치 연령 제한을 75세로 뒀음. - 통장 중 2/3는 여성으로 남성은 1분 있음. - 현재 67세인데 앞으로는 힘들어서 통장 일을 그만하러 함. - 젊은 사람들은 사는 지역에 애착이 전혀 없어 보임. - 통장이 자기 집 앞을 쓸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음. - 보통 한 통에 300세 내외로, 이곳 16통은 270세대. - 가을에 은행잎을 쓸어 담은 일을 할 사람이 없어서 도맡아 함. 담배꽂초, 낙엽 등도 쓸어서 청소함. - 원래 그런 일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는 것이 습관임. - 은행나무 잎은 제약회사에서 사 가기도 함.</p>	<p>00:10:40~ 00:19:00</p>	
<p>5. 가족</p>		
<p>- 아들이 2명 있음. - 형제지간의 우애가 자랑할 만함. 형제간의 일을 담당해서 하여 아버지와 신뢰 관계가 깊었음. - 조만간 누님도 계시는 전남 무안으로 가려고 터를 마련해 놓음.</p>	<p>00:19:00~ 00:22:20</p>	
<p>6. 70년대의 생활상</p>		
<p>- 73~74년도에 주안3 서부동 동사무소가 생기고 이후로 파출소가 들어옴. - 70년대 처음 왔을 때 공동수도가 2개뿐이어서 함석으로 만든 물동이로 물을 길어다 먹었음. 동네에 우물도 하나 있었음. - 석유 곤로에 밥을 올려 놓고 물을 길러 가면 화력 때문에 밥이 다 타버리고는 했음. - 물을 길으러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면 40~50명 정도. - 수도는 수도국에서 공동 수도로 허가를 내준 것. - 당시에는 연탄보일러를 사용했는데,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집들에서는 나무로 아궁이에 불을 때기도 함. - 동네에 공원, 주차장이 생기는 등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p>	<p>00:22:21~ 00:27:16</p>	
<p>7. 마을을 이루는 사람들</p>		
<p>- 성이 모두 다른, 타지에서 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음. - 초기에 왔던 사람들은 다 떠나고 얼마 남지 않음.</p>	<p>00:27:17~ 00:29:1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 설비, 수도, 인테리어를 종합적으로 하는 직업 특성상 동네에 계속 머무르게 됨.</li> </ul>		
<p>8. 신앙생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회에서 장로로 있음.</li> <li>- 80년대에 5살이었던 큰딸을 잃음. 시골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기차에서 먹은 김밥이 잘못되었던 것 같음.</li> <li>- 당시 신앙 생활을 소홀히 하고 있었는데 딸을 잃고 물질도 탕진하여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감.</li> </ul>	00:29:17~ 00:35:02	
<p>9. 동네에서의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장, 자생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만 만족할 정도로 하는 일은 없음.</li> <li>- 표창장을 50여 장 받아 자녀들에게 교훈을 줌.</li> <li>- 동사무소 직원들은 동의 일을 잘 몰라 동장이 보고해야 하는 등 탁상행정이 이루어짐.</li> <li>- 요구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직원과 통장 사이가 분열됨.</li> <li>- 동장은 구청에서 발령받는데 동네에 애착을 갖지 않고 직업으로만 대하는 경우가 있음.</li> <li>- 지금 동장은 예산 확보 및 내부 수리를 하여 동네가 좋아짐.</li> <li>- 동사무소가 자생단체 활동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협조하여 재건이 필요함.</li> <li>- 동사무소 직원들 중에도 현장에 나가는 경우 통장과 화합이 잘 이루어짐.</li> <li>- 지난 동장의 경우 임기가 짧아 아쉬웠음. 이번 동장은 예산, 건축 등에 많이 협조하여 동이 깨끗하고 좋아짐.</li> </ul>	00:35:03~ 00:45:33	